

# 이효석의 초기 작품 考察

— 창작집 《노령근해》를 중심으로 —

배 경 열

## 1. 머리글

한 작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엘리엇(T.S.Eliot)은 “성실한 비평이든지 예리한 작품 감상은 그 작가를 말해서는 안되며 그 작품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주의 비평가들과의 논쟁을 통해 한계가 이미 여실히 들어났던 것으로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작품 뿐만 아니라 작품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외적 요인 역시 필요하다. 그것은 문학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과, 거기에서 야기되는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작가의 미적 태도(美的 態度)에 의해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예술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작품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작가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작품 역시 그러한 작가적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매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은 작가의 독자적인 세계와 체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학연구는 작품의 독자성을 전제로 한 작품 자체의 해석과 아울러 작품내용과 이를 둘러싼 집단의식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또한 현실이 작품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작품을 형성하고

---

1) T.S.Eliot, *On Poetry and poets*, 최창호 역 (서문당, 1973).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해석 방법은 헤르만트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그는 문학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이나 분열된 관점으로 인하여 작품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총체 과학으로서 각 영역의 변증법적 재통합 방법을 제시하였다.<sup>2)</sup> 문학적 진실은 작품의 표층에 나타난 현상을 통하여 작품 이면에 감추어진 기층 혹은 심층계와의 관련된 시대 정신과 연결된 역사의 지평선을 보는 데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오프 식을 지양하고 「작가의 개인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등을 함께 연구하는 방법을 택했다. 아울러 효석 연구는 학문 자료에 입각한 객관적 비평 방법만으로는 상상의 세계인 문학의 경우에는 매우 불가능함으로 필요에 따라 필자의 주관 을 앞세우는 주관적인 비평의 방법 역시 채택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그동안 효석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며<sup>3)</sup> 그의 장녀 이나미를 중심으로 「이효석 문학 기념관」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지금까지 있어온 대부분의 이효석론은 저의가 후기시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전기 시대의 작품은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음을 본다. 이효석은 전기시대 동안에도 상당수의 작품을 발표했고, 또한 「카프」에서 인정한 동반자적 작가로서 활약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효석의 작품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기시대 문학뿐만이 아니라 전기시대 문학 역시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초기 창작집 《노령근해》를 중심으로 그의 초기 세계를 엿보고자 한다.

2) J. Hermand, *Synthetisches Interpretieren* (München, 1968), p. 173.

3) 효석 문학에 대한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후기 작품을 주로 한 작품의 기교와 문체, 또는 서정성등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효석의 작품을 검토한 결과 추출된 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한 작품에 투영된 효석의 문학관 내지 사상성에 논저를 집중시켰을 때의 평가인 것이다.

4) 60년대 후반에 와서 '위장된 순용주의'로 문학사 기술에서 배제되어 버린 일도 있지만, 예술성과 소설 기법적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초기 창작집 《노령근해》에는 동일한 서사 내에 존재하는 경향성과 낭만성의 이중성이 內在돼 있어, 본고에서는 ① 동반자적 작가 문제와 ② Exoticism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2. 본론

### 1. 동반자적 작가 문제

한국 문학에 있어 동반자적 작가 문제는 오랜 시일을 두고 논쟁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지금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문학사는 주로 백철의 견해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백철 역시 일관성 있는 주장을 펴지 못하고 처음에는 이효석을 동반자 작가로 지목했지만 나중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반 작가의 작품으로서 우선 이효석 등의 「노령근해」가 있으나 후세에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이 작품이 너무 자자의 주관적인 추상적인 정열의 표현인데,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오! 그 나라에」 등 러시아에 대한 동경에서 작가는 공상적으로 그 연안까지의 항해를 그려본 작품이다. 이 작품보다도 그 3부작으로 볼 수 있는 「상륙」, 「북국사신」 등은 같은 공상적인 작품이라도 어떤 구체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같은 경향의 작품으로서 「행진곡」도 추상적인 히로이즘을 표시한 작품으로서 대체로 이효석의 경향적 작품에선 취할 것이 없었다.”<sup>5)</sup>

이런 백철의 입장은 한국 문단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백철을 포함한 문단인들의 이런 혼란은 ‘동반자 작가’에 대한 용어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 한국적 특수성<sup>6)</sup>을 고려해야 하는 애로점(隘

5)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pp. 404~5.

6) 1933년 1월 「비판」지에 발표한 안함광의 <프롤레타리아 문화와 동반자 문학>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조남현 교수가 <동반자 작가의 성격과

路點)과 아울러 1928년을 전후한 동반자적 작가의 변모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즉, 혁명 후 러시아의 전반적 파괴와 내란을 수습하고 신경제 정책(NEP)을 펴던 시기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좌익 분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동반자 작가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1928년 이후에는 지적 활동에 스탈린의 간섭이 시작돼 문학을 「대중 조직의 도구」로 규정하고 작가들도 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과업의 선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강요당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정세의 전향에다 동반자 작가들이 지닌 애매한 이중적·회색적 입장 때문에 이들은 분열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좌경적 동반자 작가와 우경적 동반자 작가로 나누어지게 된다. 전자는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로 신흥 러시아의 현실에 접근해 갔고, 후자는 점점 보수적 색채의 농도를 더하여 점차 혹은 급속히 사회적 존재와는 무관하게 된다. 기존의 동반자 작가 논의는 주로 전자(좌경적 동반자 작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것으로 필자는 후자(우경적 동반자 작가)와 연결시켜 이효석을 논할려고 한다.

동반자 작가(Popuĉiki: Fellow Traveler)란 명칭은 러시아 문학사에서 트로츠키가 최초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10월 혁명 이후 피폐해진 러시아 문단에 새롭게 등장한 「세라피온 형제」들에게 붙여졌다. 이들 형제는 혁명을 국민 생활의 필연적 발전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적 제재로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전연 중립적 태도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동반자 작가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백철, 조남현, 박진숙의 경우로 대별(大別)해 볼 수가 있다. 백철은 10월 혁명

위상에 관한 연구에서 동반자 작가를 프로 문학에 동조한 일군의 작가로 경향 문학의 정신적인 후원이나 파수역이라 보기보다는 비판과 회의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거가 없고 윤리적으로 상충 질서를 유지하려는 후진적 지식인의 생리에서 탈피 못한 작가로 파악함은 적절한 지적이라 하겠다.

10월 혁명 이후 새로운 문학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전년 문학가들이 만든 작가 단체로, 그 명칭은 독일 낭만파의 거장인 호프만의 소설집 「세라피온 형제」(은둔자 구락부)에서 따온 것이다. 여기엔 조쉬첸코, 티호노프, 아비노프, 베딘, 니키티, 룬츠, 스로니무스키, 카베린 등이 그 동인으로 참가한다.

직후 일부 인텔리 출신의 작가들이 혁명의 의의를 승인하고 혁명적인 프로 작가와 협조하였으나 혁명의 사회주의적 성질을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동요를 보인 때 때 부르조아 인텔리 출신 작가들로서 혁명을 자연 현상으로 보고 당의 지도적 사명을 인식치 못하였으며, 현실에 대해선 개인주의적 관계를 중시하여 항상 작품에선 인텔리를 등장시킨 작가들을 일컬어 동반자 작가라고 정의짓고 있다.<sup>8)</sup> 조남현은 동반자 문학의 범주를 지식인 소설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백철과 동케라 할 수 있으며, 박진숙<sup>9)</sup>은 동반자 문학을 카프에 가입하지 않는 작가의 작품 중에서 카프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작품을 모두 포함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박영희가 <초창기의 문단 측면사>에서 밝힌 부분과 흡사한 것으로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들의 주장이 당시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서 파악하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주로 1928년 이전(소련)에 활동했던 동반자 작가들의 개념을 빌린 것으로 1928년 이후 변모 양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1928년 이전의 광범위한 동반자적 작가층을 형성하다가 1928년 이후 두파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온건하고 보수적인 경향으로 남게된 우경적 동반자 작가와 연결시켜 논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한국 문학에서는 1934년 제2차 카프검거사건(전주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단인의 태반이 그같은 사조에 감염되었던 바, 이들을 통칭하여 광범한 의미의 동반자 작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사에 있어 동반자 문학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인텔리 출신의 작가로서 사회주의적 혁명의 역사적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당의 지도 노선을 부정하며 작품 속에서 항상 인텔리 주인공을 등장시키며 ③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의의를 승인하며, 프로 작가와 동조한 일

8) 이런 백철의 논의는 1928년 이전에는 모든 동반자 작가에게 적용이 되지만 1928년 이후에는 주로 우경적 동반자 작가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좌경적 동반자 작가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9) 조남현, 「한국 지식인 소설 연구」, (일지사, 1984).

10) 박진숙, 「1930년대 한국 동반자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군의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효석은 동반자 작가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sup>11)</sup>

1920년대 중반기에 한국에 있어 맑스주의는 시대적인 상황과 조국 광복이란 민족적 지상 목표와 연결됨으로써 당시의 지식 청년들에게 아편과 같은 마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효석 역시 이 시대적 유행에 밀착돼 있었다. 따라서 《노령근해》로 대표되는 소위 효석의 동반자 작가 시절의 작품에는 관념적으로 상당히 프로적인 것에 경도되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견지(좌경적 동반자 작가 입장에서 문학 작품의 미흡함을 지적하여 동반자 작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냄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착오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반자 작가란 러시아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국적인 적용 역시 러시아의 원천적인 것과의 대비 속에서만 뚜렷해질 수 있는 것으로 세라피온 형제들(우경적 동반자 경향)과 효석과의 비교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상당 부분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①지식 청년 ②새 시대에 알맞은 형식을 갖춘 새로운 문학 창조 ③혁명적 제재로 많은 작품을 창작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한 점 ④그 후의 문학 활동상의 변천 등이다. 이와 같이 효석에 있어 남다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동반자적 경향은 그의 작품에도 나타나 있다.

「도시와 유령」, 「기우」, 「행진곡」 등의 일련의 작품에서는 이미 공간 설정과 등장인물에서 동반자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작품에

11) 이들 역시 30년대 문단에서 경향이 Kapf의 행동 강령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미온적이며 소극적이었던 문학상의 태도에 문학의 사회적 파악이란 측면에서 동반자 작가라는 입장에 회의를 표한다던가(백철), “초기 작품은 감상적이고도 비분강개조의 사실 또한 그의 비동반자적인 특징만을 두드러지게 하여”라고 그것의 무의미성의 주장(채훈) 시대적인 사조에 영합하기 위하여 좌익 사상으로 분장한 “위장한 순옹주의자”로 보는 견해(정명환) 등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들은 동반자 작가는 어디까지나 동반자 작가로 프로 작가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동반자 문학이 두 조류가 있어 이들이 주로 「우경적 경향」과 맞닿아 있음을 모르는 데서 기인한 착오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시에 안함광이 소련의 페리야코 「세라피온 형제」의 일원은 아니지만, 다분히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이나 조선의 김영팔과 이효석을 대비시킴은 타견이었던 것이다.

서 주인공들은 부조리한 현실을 탈출하고 있으며, 「기우」에서 갑순이가 서울→하르빈으로(창녀로), 「행진곡」에서 소녀가 고향(시골)→서울→봉천으로, 「노령근해」에서 주인공이 서울→노령근해로, 「북국점경」에서 고향→만주일대로, 모두 먹이가 해결되는 그리운 곳으로 상정되어 있다. 찾은 곳은 자국내가 아닌 이국이다. 그리고 《노령근해》에 수록된 작품 중 「도시와 유령」, 「북국점경」을 제외한 전작품에서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가난, 인신매매, 매춘, 구직 등이 주요 소재로 선택되고 있다. 「도시와 유령」에서 미장이인 <나>와 거지 모자, 「기우」에서 계순이, 「행진곡」에서 숙부와 소녀, 모두 빈곤한 계층으로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기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인공이 현실에 대해 저항적인 행동을 표출하고 있다. 「기우」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려는 의지, 「추억」에서 사회주의 운동, 「상륙」, 「북국사신」, 「노령근해」에서 밀항, 「행진곡」에서 투쟁의지, 「깨뜨려지는 흥등」, 「마작철학」에서 임금 투쟁 등이다.

작품내용에 있어 효석의 이러한 경향은 '세라피온 형제들'과 약간의 차이점을 노정(露程)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련과 시대 배경이 다른 한국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기존의 논의자들이 비판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은 그 시대의 문화적 문제, 즉 개인주의와 사회 사이의 대립을 가장 포괄적으로 깊이 표현<sup>12)</sup>하는 문학양식이기 때문이다. 효석은 카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동지들의 투쟁을 작품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정치적 해결의 발언은 없더라도 독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겠다는지 하는 적극적인 의욕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운동에 동의하고 그 경향에 보조하는 행동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이효석의 전기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가 뚜렷한 작가적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카프라는 이데올로기적 환경을 매개로 하여 표출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 A. Hauser,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백낙청, 엄무웅 역 (창작과 비평사, 1974), p. 22.

작가에게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의식의 성장은 사회적 지향의 확고함과 안정성에 비례한다. 개인이 그 안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집단이 강고하고 고도로 조직되고 보다 잘 분화되어 있을수록 개인의 내적 세계도 보다 명확해진다. 이효석의 출발이 동반자적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효석의 동반자적 작품 경향이 자신의 절실한 내부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부합했다고 하여 동반자 작가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동반적 작가란 개념을 잘못 파악한 데서 기인한다.

이효석의 초기 작품에 명명된 소위 동반자 작가란 칭호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필자는 앞으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우경적 동반자 작가」로 칭함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본다.

## 2. Exoticism의 문제

이 방면의 연구에서는 정한모의 연구가 돋보인다. 그는 수차(數次)에 걸쳐 철저한 실증성을 바탕으로 이효석의 exoticism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효석 문학에서 서구적 소재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데<sup>13)</sup>, 이후의 연구들이 정한모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가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후 김병익<sup>14)</sup>과 윤병로<sup>15)</sup>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들의 연구는 정한모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우종은 효석의 exoticism을 “국산으로 포장된 아류”<sup>16)</sup>로, 정명환은 “서양이 베풀어 주는 도피의 수단”<sup>17)</sup>으로, 김종철은 “현실의 위장 수단”<sup>18)</sup>으로, 박철회는 “한국적 리얼리티와 유리된 환상의 소멸”<sup>19)</sup> 등으로 귀착시켜 효석의 서구 지향을 막

13) 정한모, <이효석 문학 서구적 소재 연구> (국어국문학 90, 1984.2).

14) 김병익, 「한국장편문학대계 8」 (성음사, 1970), p. 502.

15) 윤병로, 「현대작가론」 (이우출판사, 1978), p. 66.

16) 김우종, <화려한 순수예의 미봉> (문학사상, 1974.2), p. 313.

17) 정명환, <순수예의 위장주의(下)> (창작과 비평, 1969, 봄), p. 153.

18) 김종철, <효석작품의 세계> (문학사상, 1974.2), p. 106.



연한 낭만이 깃든 소박한 exoticism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전자(긍정적인 입장)와 후자(부정적인 입장)를 포괄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강원도 산간 벽지에서 태어난 효석으로서 고향에의 향수를 기조로 한 작품을 낳았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보다 많은 작품에서는 이국풍적이고 현대 문물적인 체취를 느끼게 한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문단에는 서구의 갖가지 문예 사조가 한데 밀려와 어우러져 있었지만,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그것들은 역사적 혹은 사회적인 여건에서 필연적인 추세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피상적인 모방과 이식의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찬란한 문화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消化)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진통(陣痛)이 필요했다. 효석은 영문학도로서 서구의 문예사조에 관하여는 누구에 못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상 그는 고보 시절부터 체홉(A.P. Chechov)에 열중하였고(효석;노마의 10년), 그의 작품 경향으로 보아 로렌스(D.H. Lawrence), 멘스필드(K. Mensfeld), 켄셀(J.Kessel)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된다.<sup>19)</sup> 또한 경성제대 재학 때에는 은사였던 브릿(Brith)으로부터 학비의 보조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친밀감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문예 사조의 영향을 받은 작자는 효석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효석만이 이국풍에 침착하게 된 것은 그가 선천적으로 식물성적인 성격을 가진데다가 후천적으로 압당한 현실과는 대비되는 서구의 문물과 생활을 접하게 되자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exoticism 에 빠진 것이라고 본다.<sup>21)</sup> 정한숙<sup>22)</sup>은 그의 이런

19) 박철희, <엑조티시즘의 수사학> (문학사상, 1974.2), p. 320.

20) 유진오, <작가 이효석> (국민문학, 1942), p. 338.

21) 이것은 헤겔의 「낭만적 이로니(Ironie)」와 통하는 것으로 낭만적 이로니란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행언할 수 없는 상실감 혹은 절망에 놓여 현실적으로 행동이 불가능할 때 취하는 행동 양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로 종전의 태도를 포기하게 하고 그 역작용으로 다른 것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키는 태도 혹은 기분(Stimmung)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효석이 추구하는 eroticism(주로 후기작품)이나 exoticism은 그런 성향이 농후한 것이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그의 정신 분석학에서 말한 “예술가는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경증세자로 현실에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없었을 때 결국은 성적인 세계로 도피하고 만다”라는 의미와도 연결되는

exoticism은 주로 후천적 생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그는 모든 서구적인 것에 관하여 강력한 매력을 느끼고 또한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진오<sup>22)</sup>가 지적한 경무국 사건이 진정한 효석다운 문학의 소산을 낳게 한 전화위복의 계기였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효석은 동반자적 작품 활동을 떠나 경성에서 자기의 생활을 만족시키며 순수한 문학의 세계를 그린다. 효석의 일상생활과 취미 기호로 보아 그의 exoticism은 작품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실한 생활 감정에서 기인한 생활적인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애 유미양은 다음과 같이 그의 식성을 회상한다.

“아버지의 식성은 양식을 좋아하셨습니다. 늘 집에는 빼어터나 통조림이 떨어지지 않았고, 혹시 우리를 데리고 외식을 하실 때도 꼭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삶은 옥수수를 우유맛이라고 즐기고 풋사과로 애플 소스를 만들어 먹기도 했던 효석은 양식을 좋아했다. 대동강에서 스케이트로 한겨울을 즐길 줄 알던 효석은 음악에도 대단한 취미와 높은 조예가 있었음은 그의 대동공전 제자였던 이재현씨를 통해 여실히 전해주고 있다. 한편 그의 취미와 차림새도 다분히 exoticism적이었다. 그의 친구였던 유진오는 “효석의 취미 역시 다분히 귀족적이어서 스케이팅을 즐기고 음악은 아마츄어의 경지를 넘어선 정도이고 학생 시절부터 옷차림이 대단히 스마트하고 구두도 내피단화에다가 여자구두 모양으로 나비 형식의 장식을 붙였다.”<sup>25)</sup>라고 그의 취미와 차림새를 단적으로 회상하고 있다.

exoticism적 취향은 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의 「화초」란 수필을 보면 장미를 제일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장미가 구라과의 향기를 내며

것으로 Exoticism이 좀더 짙게 드러난 것이 Eroticism이라고 할 수 있다.

22) 정한숙, 「성의 유형과 그 매체」 (아세아 연구, 1971.6.).

23) 유진오, 「이효석과 나」 (조광, 1942.6.), p. 86.

24) 이유미, <나의 아버지 이효석> (세대, 1970.12), p. 240.

25) 유진오, 전계서, p. 341.

그것이 구라과의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효석은 한낱 꽃에서도 그의 독특한 exoticism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여인상 역시 동양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적인 것이었다.

효석의 이러한 exoticism은 그의 생활 감성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세계에도 노골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북국사신」, 「노령근해」, 「북국점경」 등의 일련의 작품에서는 이미 표제에서부터 효석의 exoticism적 향수 방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와 유령」을 제외한 모든 작품에서 국외로 주인공이 나가 있거나(「상륙」, 「북국사신」, 「기우」의 일부), 혹은 나가고 있거나(「행진곡」, 「노령근해」, 「기우」의 일부), 혹은 이국적인 것에 대해 강렬한 관심을 가진(「북국점경」의 일부), 사람의 이야기로 초기적인 exoticism이 발견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sup>26)</sup> 그것은 이러한 exoticism이 효석 소설의 모티프가 되어, 후기작의 성격 추적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즉, 후기작에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었거나 변형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무렵의 exoticism은 작가 특유의 목적의식 때문에 왜곡되어 있거나 특수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후기 작품에서처럼 동경의 대상으로 작품에 짙은 색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작품에서 러시아 및 그곳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exoticism은 현실의 빈궁에 따른 사회제도적 모순을 감지하고 그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막연한 의지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래서 창작집 《노령근해》에서 취급하고 있는 러시아적 요소나 하르빈은 exoticism이 짙은 작품의 색조(色調)를 드러내기에는 미흡하고 다만 억압된 현실공간(서울)에 살면서 이상적으로 러시아의 공간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꾸며 생을 즐기면서 정신적으로 현실을 탈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작품의 특징으로 논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며, 다만 효석의 후기 작품의 특징의 입자가 배태(胚胎)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효석의 전기시대는 후기를 위한 과도기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효석의 exoticism의 본질은 효석이 위치하고 있는 시대와 환경

26) 채훈, <전기 이효석 작품고> 「이효석전집 8」 (창미사, 1983), pp. 189-190.

이란 여건아래 그 자신의 이지와 감정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석이 가진 공동체의 꿈(저항성)을 구축하면서 작가의 개인적인 꿈(exoticism)이 유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향이 그의 후기 문학 세계에서 더욱 현저하게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 3. 결 론

초기 창작집 《노령근해》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①동반자적 문제」와 「②Exoticism의 문제」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효석의 초기 세계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효석의 작가 의식이 비록 사회 의식과 역사 의식의 결여와 추상적으로 기성 관습을 답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자가 「세라피온 형제」들 중 '우경적 동반자 작가'와의 비교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초기 작품의 대표적 특성은 동반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의 생리와 신분이 동반자적 작가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장애(障礙)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효석은 시류에 편승해서 경향적인 작품을 쓰고자 했던 것이었음은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지향점으로 해서 분명하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작품으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결국 경무국 사건이후 문학에 있어 소위 전향을 하여 우경적 동반자 입장에 머물렀을 뿐이다. exoticism은 초기 작품에서 그 특징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나 효석이 위치하고 있는 시대와 환경이란 여건아래 그 자신의 이지와 감정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낭만적 이로니(Ironie)로서 효석에게는 중요한 일 요소임이 분명하다.

본고는 주로 전기 작품을 다루어 작가의 전반적인 면을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전반기 작품에 나타나는 eroticism이나 exoticism경향이 후반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1. 기본자료

이효석 전집(창미사, 1983)

「문장」, 「비판」, 「우리들」, 「제일선」, 「조광」, 「조선」

### 2. 논문, 평론 및 기타

곽근, 「일제하의 한국문학 연구」(집문당, 1986)

곽학송, <유진오와 이효석> (월간문학, 통권 173호)

권정호, 「이효석 소설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8)

김병익, 「한국장편문학대계8」(성음사, 1970)

김우중, <화려한 순수예의 미몽> (문학사상, 1974.2)

김종철, <효석작품의 세계> (문학사상, 1974. 2)

박진숙, 「1930년대 한국 동반자 문학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박철휘, <엑조티시즘의 수사학> (문학사상, 통권 17호)

백철, 「신문학사조사」(신구문화사, 1980)

유문선, <동반자 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관악어문 연구 제7운)

유명구, <효석 초기 작품의 특징> (어문연구, 1976. 겨울호)

<효석 문학의 변모 양상> (남광우박사 회갑기념논총, 1980)

유진오, <작가 이효석> (국민문학, 1942)

윤병로, 「현대작가론」(이우출판사, 1978)

이상옥, <한 동반자 작가의 변신> (세계의 문학, 통권 4호)

이익성, 「1930년대 서정적 단편소설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이재선, <이효석론> (서울대 문리대 학보, 1958)

- 전문수, <동반자 순수의 비화해> (현대문학, 통권 322호)
- 성한모, 「효석 문학에 나타난 외국 문학의 영향」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59)
- \_\_\_\_\_, <효석과 Exoticism> (국어국문학, 1956.12)
- \_\_\_\_\_, <효석문학에 나타난 외국문학의 영향> (관악어문 연구)
- 정한숙 「성의 유형과 그 매체」 (아세아 연구, 1971.6)
- 조남현 「지식인 소설 연구」 (일지사, 1984)
- <동반자 작가의 성격과 위상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1992.6)
- 주종연 「이효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65)
- <이효석의 초기 작품고> (국민대학 논문집11, 1977)
- 최정희 <노령근해 무렵의 이효석> (현대문학, 1962. 12)
- 홍재범 「이효석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이민희 편역 「좌우익 기회주의 연구」 (아침, 1988)
- Eliot, T. S., *On poetry and poets*, 최창호 역 (서문당, 1973)
- Freedman, R., *The Lyrical Novel* (Princeton Univ. 1971)
- Hauser, A.,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백낙청, 염무웅 역 (창작과 비평사, 1974)
- Hemand, J., *Synthetisches Interpretieren*(München, 1968)
- Lawrence D. H., *Selected Essays* (Penguin Books, 1954)
- Trotsky, L., *Literary & Revolution* (Michigan Univ. Press, 1960)